

김민석 총리, 청소년·청년 기후대표단 면담

- 기후위기 핵심 당사자인 미래세대 단체 30곳과 소통 창구 마련하여
분기별 정례 소통 추진... 기후 정책에 미래세대 목소리 적극 반영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기후대응위”)는 4월 18일(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청소년·청년 기후단체와 협의체를 발족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소년·청년 기후 대표단을 면담했다.
 - 면담은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의 일환인 ‘삼청동 오픈하우스’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 면담이 시작되기 전 파주 문산수역고 환경동아리 대표로 참석한 이지현 학생과 김한울 학생이 김 총리와 참석자들에게 페트병 뚜껑을 재활용해 만든 컵을 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 금일 발족한 「청소년·청년 기후협의체」는 기후 위기 핵심 당사자인 초·중·고·대학교, 독립청년단체 등 미래세대 단체와 정부의 기후 논의 소통 창구로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 앞으로 기후대응위와 청소년·청년 기후단체 대표단은 협의체를 통해 매 분기 1회 소통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청년단체*는 “이제라도 정부와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생긴 것을 환영하며, 협의체 안에서 논의되는 제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서울당현초 ‘그린메이커스’, 용인 성지중, 파주 문산수역고 ‘해바라기’, 이화글로벌 사회공헌원, 서울대 환경동아리 연합회,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학생 신재생에너지기자단, (사) 기후변화센터 유세이버스, (사)에너지전환포럼 청년프런티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넷제로프렌즈

-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후문제가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기성세대가 놓치고 있는 기후 정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후시민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현교 (044-200-1969)
		담당자	사무관 오현진 (044-200-1975)



[붙임]

면담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나이)	소속단체	구분	성명(나이)	소속단체
초등학교	박수현 (2015년생)	서울 당현初 5학년 교내 환경동아리 「그린 메이커스」	청소년 단체	한제아 (2012년생)	윤중中 (2학년)
	이지우 (2015년생)		청년 단체	김지윤 (1991년생)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중학교	임예령 (2013년생)	용인 성지中 1학년		김 민 (1991년생)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고등학교	이지현 (2009년생)	파주 문산수억高 환경동아리 「해바라기」	청년 언론	정성엽 (2003년생)	대학생신재생에너지 기자단 29기
	김한울 (2008년생)		환경단체 산하	이주영 (2001년생)	(사)기후변화센터 유세이버스
대학교	김나현 (2005년생)	이화글로벌 사회공헌원		강재은 (1996년생)	(사)에너지전환포럼 청년프런티어
	김어진 (2002년생)	서울大 환경동아리 연합회 의장	정부지원 서포터즈	서승희 (2001년생)	국가기후대응위원회 넷제로프렌즈